

농어촌공 영덕울진지사, 운영대의원 정기회의

급수예고 원스톱 알림
사전재해예방계획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지난 18일 영덕울진지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운영대의원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운영대의원 정기회의에는 제12기 운영대의원 7명이 참석해 2026년 수자원분야 중점 추진업무와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운영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매년 태풍과 이상강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현재 공사가 저수지 저수율을 관리수위로 관리하는 '사전재해예방계획'과 향후 도입 예정인 고객 맞춤형 '급수예고 원스톱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됐다.

손명훈 영덕울진지사장은 "주기적

인 운영대의원회 개최를 통해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설물 관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급수 환경 조성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달희 기자